





▲ "생존 위해 100주일간 뼈 깎는 원가절감" - 한화종합화학의 공장 밖에는 생존을 위해 100주 동안 뼈를 깎는 원가 절감 운동을 펼치자는 내용의 '서바이벌(survival) 100'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중호 기자

한화종합화학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롯데케미칼 공장도 PTA 생산량을 60%로 줄였다. 이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SK유화는 2014년부터 PTA 생산을 중단하고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전남 여수에 있는 삼남석유화학 역시 지난 2012년 초 4개 생산라인 중 1개를 꺾고, 올해 1월에 추가로 1개 설비의 가동을 멈췄다.

한때 국내 산업계에서 손꼽히는 캐시카우(현금창출원)였던 석유화학업계가 지금은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PTA는 5년 전만 하더라도 수출액이 연간 45억달러(약 5조원)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인 효자 수출 품목이었지만, 작년 수출액은 20분의 1 수준인 1억9000만달러(약 2100억원)에 그쳤다. 글로벌 PTA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자국 내 생산을 늘리면서 자급률이 100%를 넘어선 결과다.

석유화학제품뿐만 아니다. 지난달 선박·휴대전화·반도체·자동차 등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중 작년보다 수출액이 늘어난 품목은 하나도 없었다. 과거 중국이 10%대 고도성장을 할 때 대중(對中) 수출로 특수(特需)를 누리다가 이제는 중국발 공급 과잉 탓에 생존을 걱정하는 한국 주력 산업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30대 그룹, 성장성·수익성 동반 추락



한국 경제의 주력군인 30대 그룹은 지금 세계 경기 침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도전이라는 삼각 파도 앞에 놓여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추정하고 있다. 1996~2006년 평균인 3.6%에 훨씬 못 미친다. 여기에 더해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각국의 수입 규제 건수는 2011년 119건에서 작년 210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무역 증가율이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의 추격은 무섭기까지 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 주력 수출 제조업인 조선·철강·화학 등이 밀리는 핵심은 중국 때문"이라며 "중국이 너무 많이 쫓아왔고 IT·자동차까지도 점점 밀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출이 타격받으면서 30대 그룹의 매출은 줄고, 수익성도 나빠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8월 반짝 반등한 것을 빼면 2014년 12월 이후 9월까지 20개월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10월에도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 등의 여파로 상승에 18.2% 감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1인당 매출액은 2011년 10억 7993만원에서 작년 9억 6866만원으로 줄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1인당 영업이익도 지난 4년간 1815만원이 줄어 작년 5317만원을 기록

